

<새 자료 2>

희곡 <강촌에서 생긴 일>에 대하여

자료 제공: 박영정*

1

희곡 <강촌에서 생긴 일>은 이번에 처음 소개되는 작품이다. 또한 그 작가인 昇應順(1908~1936)도 문단이나 연극계에 매우 낮은 인물이다. 따라서 작품 소개에 앞서 작가 승응순에 대해 먼저 소개를 하는 것이 순서일 듯싶다.

승응순은 황해도 金川 출생으로 29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한 작가이다. 그는 金川公立普通學校를 졸업하고 서울의 普成高普를 다니다 중도에 퇴학하였으며, 다시 延專 文科에 입학하였으나 역시 중도에서 퇴학하였다.¹⁾

그가 지상에 발표한 최초의 글은 1929년 3월 보성고보 재학중 『동아일보』에 발표한 「어느날 北村거리」²⁾라는 스케취 형식의 짧은 글이다. 이후 그는 5월에는 『조선일보』에 시 <希望>³⁾을 발표하였으며, 그 해 여름 방학

* 건국대 강사

- 1) 「作者 紹介」, 『朝鮮中央日報』, 1933.1.5.
- 2) 『東亞日報』, 1929.3.12.
- 3) 『朝鮮日報』, 1929.5.7.

“동모여!/ 찌러지는 落日을 애닦아 말라/ 찌러지는 落日의 붉은 旗八발 압헤는/ 來日 아침이라는 새 希望이 뛰놀고 있나니//

동모여!/ 문어진 집터를 보고 서러워 말라/ 집 문허진 쌍에는 새 집이 세워지나니/ 우리는 새 希望을 바라고 살자!”

때는 조선일보사가 주최한 귀향 학생 문자보급반의 일원으로 고향인 황해도 金川面 葛峴里에서 문자보급 활동을 전개하면서 그 활동에 대한 통신문 형식의 보고서 세 편을 『조선일보』에 발표하기도 했다. 「晝夜兩班의 二十餘名—쌈흘리고 모혀드는 어린이와 농부」⁴⁾, 「自重합시다」⁵⁾, 「그들은 이미 文盲이 아니다」⁶⁾가 그것이다. 이러한 문자보급반 활동을 통해 그는 우리 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계몽주의자로서의 의식도 형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우리 말에 대한 관심과 계몽주의자적 의식은 1931년에 발표한 한글날 기념가인 <한글 紀念歌>⁷⁾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후 승응순은 연전 문과에 들어가면서 延專學生會 劇研究部에 가입하여 활동 하던 중 학생극 <어둠의 힘>(톨스토이 원작, 1931.11)에 출연하면서 무대와 첫 인연을 맺는다.⁸⁾ 이번에 소개하려는 희곡 <강촌에서 생긴 일>도 그가 연전 연극부에서 활동하던 시절 『延禧』(1931.12)에 발표한 것이다.

그는 교내에서의 연극부 활동 외에 申鼓頌·李元壽·金永壽·尹石重 등의 아동문학가들과 함께 아동예술의 연구와 제작 및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新興兒童藝術研究會'의 창립에 발기인으로 참여⁹⁾하는가 하면 『少年文學』의 창간에도 관여¹⁰⁾하는 등 아동예술운동에도 큰 힘을 기울였다. 한편

4) 『朝鮮日報』, 1929.7.29.

5) 『朝鮮日報』, 1929.8.20.

6) 『朝鮮日報』, 1929.8.24.

7) 『朝鮮日報』, 1931.1.4.

1. 기록할사 오날이 한글괴럼날/ 캄캄한 이나라에 초스불이 되고/ 荒蕪한 이땅의 연장이 되려/ 半千年前 이날에 한글이 낫네

2. 반갑도다 오날이 한글괴럼날/ 뿌리잡인 우리문화 다시살리고/ 밝아벗은 우리에게 웃을입히려/ 半千年前 이날에 한글이 낫네

8) 『朝鮮中央日報』, 1933.1.5.

9) 『朝鮮日報』, 1931.9.17.

10) 『朝鮮日報』, 1932.12.7.

이 『少年文學』 창간호의 필진으로는 昇應順 외에도 宋影, 朴世永, 申鼓頌, 朴太陽, 洪九, 李東珪, 李周洪, 李燦, 金沼葉 등 카프계 아동문학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1932년 3월 동인 잡지 『文學』의 동인이 되어¹¹⁾ 소설을 썼다고 하나¹²⁾ 그 작품은 전하지 않는다.

1932년 말 그는 갑자기 연전 문과를 중도 퇴학하고 극단 新舞臺 각본부원으로 활동중¹³⁾, ‘金能仁’이라는 필명으로 희곡 <旋風後日譚(一名 離叛者)>(전1막2장)을 써서 1933년도 조선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응모하여 일등 당선함으로써 정식으로 등단하였다.¹⁴⁾ <강촌에서 생긴 일>을 발표한 지 1년 정도 뒤의 일이다.

그의 등단 희곡 <선풍 후일담>¹⁵⁾은 ‘旋風’, 곧 ‘동학농민혁명’이 끝난 직후 전라북도 어느 농촌을 배경으로 극이 진행되는데, 동학농민혁명에 가담 하였던 한 청년[趙永壽]이 함께 구금되어 있던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의 행적을 포청에 알려마쳐 ‘離叛者’가 되고, 결국 마을 사람들에게 의해 처형을 당하게 된다는 비극적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을 다루되 그 후일담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을 보인다. 또한 극의 결말부에서 주인공 조수영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조수영 본인은 물론이고 그의 어머니와 아내[蓮心]가 모두 ‘양심’을 앞세워 그의 죽음을 결연히 받아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어 계몽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낸다.

이 희곡의 심사를 맡았던 윤백남은 이 작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평하였다.

11) 『『文學』 創刊—研究 創作 發表 同人誌』, 『朝鮮日報』, 1932.3.9.

“眞實한 文學研究와 및 그 發表機關으로 同人雜誌 『文學』을 來八九日頃에 創刊하리라고 한다. 興味本位の 營利의 低級趣味를 쫓아 좀더 生命이 躍動하는 文學을 產出하러 한다 하여 第一號의 內容은 相當히 異彩를 發揮할 것이라고 하며 現在의 同人은 如左하다 한다.

金天主 文裕 昇應順 鄭鎮石 金昊奎 姜榮周 梁基哲 洪斗杓 張鉉穆(無順)”

12) 조선중앙일보 신춘문예 당선 소감문에서 승응순 스스로 “學窓時代 同人雜誌 『文學』에서는 小説만 썼습니다.”고 밝히고 있다.(『朝鮮中央日報』, 1933.1.11)

13) 『朝鮮中央日報』, 1933.1.5.

14) 이 때의 심사원은 尹白南과 洪海星이었고, 趙容萬이 <申叔舟와 그 夫人>으로 선의 가작으로 입선하였다.

15) 金能仁, <旋風後日譚>(전5회), 『朝鮮中央日報』, 1933.1.5~10.

이 作品은 上演 臺本으로서 거의 完全에 갖거운 戲曲이나 人物 個個의 性格 그리고 그들의 세리후가 가장 自然스럽게 表現되였다. 더욱 蓮心이라는 女子—主人公 趙壽永의 安해의 臺辭는 보드러운 가운데에 은연한 氣節이 쫘쫘 내보이는 듯한 맛있는 말씨가 꽤 洗鍊된 붓대로 그리어 있다. 그리고 蓮心의 母親인 安氏가 문간에서 살그머니 自己 딸을 졸으는 대목은 이 劇을 舞臺效果의 으로 또는 安氏의 性格을 表現하는 데에 꽤 有效하였다. 相當한 手法이라고 말할 수 있다.¹⁶⁾

윤백남이 언급하고 있는 등장인물의 대사, 특히 아내의 ‘맛있는 말씨’는 승응순의 우리말에 대한 관심이 작품 속에 적절히 소화된 데서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승응순은 신춘문예 당선과 동시에 이 해 초 오케레코드사의 창립에 참여, 문예부장이 됨으로써 레코드계에도 발을 들여 놓았다. 그는 조선중앙일보 신춘문예 당선 소감에서는 이후 극작 분야에 정진할 것을 다짐한 바 있지만¹⁷⁾, 더 이상의 희곡 창작이나 연극계 활동은 보여 주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때까지 레코드계에서만 활약하게 된다. 그는 1936년 1월 운명¹⁸⁾하기까지 약 3년간 오케레코드사의 문예부장직에 있으면서 ‘金陵人’이라는 필명으로 대중가요의 작사 활동에 주력하여 이름을 떨쳤다. 또한 그는 작사 활동 이외에도 전국을 돌면서 전통 민요의 발굴에 힘썼으며, ‘레코드 평

16) 尹白南, 「懸賞戲曲 選後感」(下), 『朝鮮中央日報』, 1933.1.10.

17) 金能仁 談, 「이것을 動機로 劇作方面에 精進—當分 劇界 生活 繼續」, 『朝鮮中央日報』, 1933.1.11.

“學窓時代 同人雜誌 『文學』에서는 小說만 썼습니다. 그런데 別안간 學窓을 나와 劇界로 脚本을 쓰려고 들어왔으나 내 自身의 力量을 試驗해 볼 길이 업다가 今番 機會에 그것을 試驗해 본 것쯤 됩니다. 그런데 十二月中에 마춤 地方에를 갔다가 上京하여 本즉 締切이 겨우 이틀 남았습디다. 그래서 그리 훌륭한 작품이 못 되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動機로 하여 劇作方面에 더한층 精進하겠습디다. 또한 當分間 實際 劇界生活을 繼續하며 朝鮮의 劇界 向上에 微誠이나마 드리겠습디다.”

18) 『朝鮮日報』, 1936.1.10.

론'을 통해 레코드 문화의 발전에도 남다른 힘을 기울였다.

사실 그는 회곡 작가 '승용순'으로서보다는 대중가요 작사자 '김능인'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타향살이 멧 해런가 손꼽아 헤여 보니...'로 시작되는 <타향살이>(1934.6)를 비롯하여 <귀향>(1933.5), <港口의 離別>(1933.6), <春詞>(1933.6), <青春行進曲>(1933.6), <오대강 타령>(1934.7), <봄 강>(1934.7), <孤寂>(1934.11), <불사조>(1934.11), <關西千里>(1935.8), <앞 강물 흘러 흘러>(1935.9) 등 수많은 가요를 작사하였다.¹⁹⁾ 그의 가요 가운데는 “번민과 오너의 탈을 벗겨 버리고 열정과 갈망의 칼을 낚히 들고서/ 잠자는 대중을 소리쳐 불노오니 우리는 이쌍의 청춘이로다// 공포와 저주의 등을 쫓여지나고 수란과 장해의 벌을 쫓코 나가서/ 승리의 언덕에 새날을 고하오니 우리는 이쌍의 청춘이로다”²⁰⁾하는 <청춘행진곡>처럼 계몽성이 농후한 작품들도 있다.

한편 그는 「朝鮮 레코드 創作界의 新展望」²¹⁾이라는 평문에서 레코드를 무조건 저속하고 음란한 것으로 치부하던 사회 일반의 시각에 대해 비판하고, 레코드야말로 현대 기계문명의 귀중한 재산으로서 문화 향상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제작자와 구매자층의 각성을 동시에 촉구한 그는, 그 무렵 식자층의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데 주목하여, 레코드가 ①레코드劇을 통한 敎化事業, ②가요 음반을 통한 鄕土民謠의 採集과 新民謠의 創作, ③唱盤을 통한 朝國古謠의 維持와 淨化의 세 가지 방면에서 사회적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레코드 사업에 있어서도 그의 계몽적 태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레코드를 이용한 계몽사업에 대한 그의 열정은 '교육레코드'의 제작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1935년 말 그는 아동들에 대한 우리말 교육을 위해 12매 1조의 '교육레코드' 발간 사업을 추진한다.

19) 김능인의 작사 활동에 대해서는 박찬호의 『한국 가요사』(현암사, 1992.)를 참조.

20) 『朝鮮日報』, 1933.6.5.

21) 『朝鮮中央日報』, 1934.1.16~17.

吹入 材料는 朝鮮總督府 編 普通學校 朝鮮語讀本을 取扱하여 全朝鮮 模範 普通學校라 할 만한 京城師範附屬普通學校 兒童中에서 選拔한 兒童을 爲先 正確한 發音과 模範的 讀法의 標準을 보이고 教材의 意味 單純함을 살리기 爲하여 適當한 名曲 伴奏와 特殊한 效果를 너어 吟味를 助長했으며 學校에서 배운 教科書를 家庭에 와서 復習함에 잇서 가장 큰 선생이요 조흔 벗이 되게 하였습니다.²²⁾

이처럼 대중매체의 하나라 할 수 있는 레코드를 교육 목적, 특히 언어 교육에 적극 활용하려는 그의 생각은 넓은 의미에서 보아 초기의 문자보급운동의 연장선상에 놓인 것이라 하겠다.²³⁾

이상에서 작가 승응순의 생애와 활동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의 활동은 크게 고교 시절의 문자보급반 활동, 연희 전문 시절의 연극부 활동, 그리고 오케레코드사 문예부장 시절의 대중가요 작사 및 레코드 비평 활동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남긴 희곡이 <강촌에서 생긴 일>과 <선풍 후일담>의 2편뿐이라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극작가로서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2

희곡 <강촌에서 생긴 일>은 『延禧』 제8호(1931.12, 115~123면)에 실린 단막극이다. 비록 학생 시절에 발표한 것이긴 하지만 승응순에게 있어서는 첫 희곡으로서 의의를 갖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제목에는 ‘강촌’으로 되어 있지만 무대 지시문에는 ‘경치 좋은 동편 바닷가, 문화촌화하여 가는 어촌’이라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어촌’을 공간 배경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통적인 어촌에 근대적 어업회사가

22) 昇應順, 「教育레코드 製作의 苦心談」, 『朝鮮日報』, 1935.11.4.

23) 이외 그의 ‘레코드 평론’으로는 金陵人, 「레코드 一年의 回顧—朝鮮레코드의 將來」, 『朝鮮中央日報』, 1936.1.1, 1.5)가 있다.

침투함으로써 현지 어민의 궁핍화가 가속화되어 결국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는 어촌 현실을 다룬 작품으로서, 일종의 ‘어민극’²⁴⁾의 범주에 드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작품은 해외 유학을 떠났다 8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상철이 ‘자신의 고향집 자리에는 현대식 별장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 8년 동안에 ‘뚜롱치 마을’에는 실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작품 서두의 무대지시문에서부터 확연하게 시각화되어 나타난다.

오른편은 번창해가는 문화촌의 입구(入口), 왼편은 쪼들어 가는 어촌. 정면에 자동차 다니는 넓고 깨끗한 신작로가 가로놓여 오른편 길은 양식 별장의 현관 앞까지 닿였다. 신작로 옆 배경으로 향환 쪽은 여름 풀이 무성한 축둥, 왼편에 큰나무 그늘이 섰는데 그 사이로 어느 쓰러져 가는 어부의 집이 안마루까지 드러다 보인다. 그 집 앞은 조그만 소로(小路), 이 길이 꼬불거리어 배경 왼편 아래쪽, 꺾작 같은 두서넛의 어부의 집 사이로 통하였다.²⁵⁾

무대 오른편의 ‘문화촌’에는 ‘자동차’가 다니는 넓은 ‘신작로’와 ‘양식 별장’이 있는 반면, 무대 왼편에는 조그만 ‘소로’와 쓰러져 가는 ‘어부의 집’이 놓여 있다는 대조적 설정 속에 이미 ‘문화촌화하여 가는 어촌’의 변화가 한 눈에 읽혀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변화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희생을 강요하는 억압적 상황으로 다가온다. 범선 몇 척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뚜롱치 마을’에 외지(서울)에서 현대적 어업회사가 들어와 어업권을 장악하게 되자, 어민들은 하나둘 고향을 떠나게 되어 20여 호가 넘던 마을이 10여 호도 채 안 되는 작은 마

24) ‘어민극’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양승국, 「함세덕 희곡에 나타난 바다의 의미」, 『인문논총』(울산대학교) 제5집, 1993, 14~15면.

25) 昇應順, <강촌에서 생긴 일>, 『延禧』 제8호, 1931.12, 115면.

을로 몰락해 버린 것이다.

어부甲 언제든지 그러치만 이번 행보에는 행보 중에도 제일 많이 잡힌 것이 아닌가? 참말이지 그거야말로 아깝데. 이것을 모두 회사에다가 바치고 겨우 일급 뭇십 전을 바다가지고 올 생각을 하니 폭풍이 일어나 파선이나 댓으면…… 하는 생각이 붓적붓적 나데 그러!

어부乙 셋! 말조심하게. 잘못하다 목 다라나네. 그러나 할 수 잇나? 먹어갈려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회사패들과 경쟁은 할 수 없으니까…….

어부甲 흥, 매일반이야 매일반. 그까짓 일값 三十전이나 四十전 가지고 우리집 여섯 식구가 먹어가는 줄 아나? (좀 흥분된 어조(語調))²⁶⁾

녕 감 (멀리 섬쪽을 손꼬락질 하며) 자네도 생각날 것일세, 자네가 어렸을 때 내 나룻배를 타고 가끔 저 섬에를 놀러 갔겠다. 그러치 그 때는 나도 이 러케 궁하지 않았지……. 그런데 그 놈의 자동차가 이 동리에를 뽕뽕거리며 찾아오고 서울 양복각정인들이 떼로 몰려오기 시작하드니 그놈의 회사 가 생기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하나 둘씩 내어쫓고……. 그놈의 똑딱이 배는 내 나룻배를 홀가 집어삼켰네 그러! (흥분된 어조로) 그리고 우리 아 들놈, 수석이란 놈이 고기를 잡아 당당이 집으로 못 가져오고 경상도 전 라도까지 위험하고 먼 길을 가잖으면 안되는 것도 모도 자네 같은 양복쟁 이들 성화 때문이야……. (바다편으로 다시 걸어나가며) 그런데 아직도 보 이지 안는구먼……. 아무리 먼 끝을 갖드라도 벌서 보름이 지나도록 소식 이 없으니, 정녕코 그놈이 죽었어. (주저앉아 운다)²⁷⁾

이는 마을 토박이들이 떠난 자리에 역으로 외지(황해도)에서 노동하러 들어온 어부 갑·을의 대화와 이 마을 토박이로서 이 마을에 남아 있다 귀먹어리가 된 영감의 대사이다. 위에서 보듯 이 작품에는 현대적 어업회사가 설립됨에 따라 평화스럽던 한 어촌이 황폐하게 된 사정이 매우 사실

26) 앞의 글, 116면.

27) 같은 글, 117~118면.

적으로 그려져 있다.

극의 진행은 주인공 상철의 인식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큰 흐름은 다음과 같다.

① **상철**: 고향에 돌아온 상철이 자신의 고향집 자리에 난데없는 큰 별장이 서 있고, 또 아버지와 누이의 소식조차 알 수 없자 번민한다.

② **상철과 어부 갑·을**: 어부 갑·을과의 대화를 통해 상철은 어업 회사가 들어오면서 마을의 문제가 시작되었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외지로 쫓겨났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와 누이의 소식은 모른다.)

③ **상철과 귀머거리 영감**(②의 반복 강화): 서울서 ‘양복작정이’들이 ‘자동차’ 타고 와서 회사가 생기고 그에 따라 마을 사람들이 내어쫓겼다는 사실을 마을 노인의 증언을 통해 보다 실감 있게 알게 된다.

④ **연홍과 신사들**: ③의 내용과는 대조적으로 신사 이와 안이 한가롭게 바다 경치를 그리고 나서 기생을 불러 즐기려고 한다.

⑤ **상철과 연홍**: 상철이 연홍[동생 금녀]을 만나 아버지가 빚 때문에 그녀를 평양집에 기생으로 팔아 넘기고 떠나버린 사정을 듣게 된다.

⑥ **상철과 평양집**: 연홍을 사이에 두고 상철과 평양집의 대결이 벌어지나, 연홍은 평양집을 따라가고 상철만 혼자 남아 생각에 잠긴다.

⑦ **상철과 복돌네 가족**: 상철은 마을을 떠나가는 복돌네 가족을 만류하고, 마을의 재건을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을 다짐한다.

①에서 고향의 변천한 모습을 보는 상철은 ②, ③을 거쳐 보다 구체적인 마을의 실상을 알게 된다. ④, ⑤, ⑥에서 비애와 분노의 감정이 고조되고, 그러한 사이에 문제의 근원을 인식하게 된 상철은 마침내 그 해결책으로서 ⑦에서 적극적 행동을 결심하게 된다.

상 철 안입니다. 절대로 가서는 아니됩니다. 이대로 도로 들어가십시오. 지금 아무 끈을 가나 우리는 역시 똑같은 운명을 맞날 것이 아닙니까? 그럴진대 이왕이면 이 끈에 죽기로 붙어 있어 죽기로써 싸워나가야 할 것이 아

납니까? (독백(獨白)하듯이) 아아, 나는 나의 고향이 이러케 된 줄은 참 몰랐습니다. 왜? 나는 고향에 돌아와 여러분과 한가지 힘을 합하여 싸워 나갈 술법을 배워오지 않고 꿈속에서 헤매었는가? (다시 여러 사람을 향하여 조금 높은 소리로) 그러나 나는 조그만 힘이나마 여러분과 한가지 우리의 살 방침을 연구기로 결심하였사오니 자아 곳 다시 들어갑시다. 낮에는 돛 높이 달고 썩어가는 나무배나마 거칠은 풍랑을 헤치고 겁내지 말고 돌진하며 밤에는 모도 한 곶에 모여 앉아 같이 모르는 것을 알며 싸워 나갈 방침을 연구하면 반듯이 어떠한 광명이 있을 것입니다. 자 마침 물때도 좋고 하니 이 달밤에 위험한 행보로 떠납세다.

복 돌 (죽는 소리로) 자네 말도 옳기는 하지만도 도로 들어가 노를 저어도 역시 별 도리가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상 철 (더 힘있는 소리로) 무어? 그것이 무슨 말인가? 젊은 우리들이 이런 약한 마음을 가지면 글세 어찌잔 말인가. 아닐세. 우리에게는 언제까지나 죽으란 법이 없네. 글세 딱하지 않은가? 약하고 힘없다고 스스로 자멸을 해서야 너무 어리석지 않은가? (귀먹어리 영감을 가리키며) 아아참 아까이 영감이 내 입을 이 양복을 펴 마음에 거리끼는 모양이든걸. (양복을 황망히 벗으며) 이까짓것 참되지 못하고 군색한 것 바다로나 던져버리지. (복들을 향하여) 자, 복들이 어서 새로운 용기를 내어 우리는 지금부터 힘과 마음을 합하여 짝으러진 마음을 위하여 싸워나가세. 굶으면 다함께 굶고 먹으면 다함께 먹세 그러!28)

수동적으로 사태에 끌려가기만 하는 마을 사람들에 비해 오직 상철 한 사람만 적극적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다든지, 작품의 결말이 의식의 각성을 촉구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것은 이 작품이 계몽적 구조로 되어 있음을 말해 준다. 이는 작가 승응순의 계몽주의자로서의 성향이 작품에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 하겠다.

작가 승응순의 극작가로서의 활동이 미약하고, 『연회』이라는 발표 지면이 학생들의 발표지라는 작품 외적 사실들을 고려할 때 이 작품의 희곡사

28) 앞의 글, 122~123면.

적 의의는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작품이 1930년대 초 한국 어촌의 변천 과정을 사실적으로 그리면서도, 8년 만에 다시 찾아온 상철의 눈을 통해 그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 주고 있으며, 나아가 문제 해결의 한 가능성으로 어민들의 주체적 각성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민극’으로서의 의의를 갖는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더욱이 그 발표 시기가 함세덕의 <산허구리>(1936년)보다도 5년 정도 앞서 있다는 점에서 근대 희곡사에 있어 ‘어민극’의 출발이 되는 작품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다.

끝으로 이번에 소개하는 희곡 <강촌에서 생긴 일>의 표기는 원전을 그대로 따랐음을 밝혀 둔다. 원전을 충실하게 소개한다는 원칙하에 오자나 탈자의 경우도 일부러 바로잡지 않았다. 다만 띄어쓰기만 현대어에 맞게 교정하였을 뿐이다.

희곡 <강 존에서 생긴 일>

작 가 : 승응순

발표지 : 『연희』 제8호(1931.12)

무대에 오른 사람들

| | | |
|--------|---------------|------|
| 상철 | 고향을 찾아 온 사나이 | 二十六세 |
| 금녀(연홍) | 상철의 누이, 기생 | 二十세 |
| 복돌 | 상철의 옛 친구 | 二十九세 |
| 영감 | 귀머거리 동리 노인 | 六十二세 |
| 김서방 | 복돌의 아버지 | 五十五세 |
| 평양집 | 기생 영업하는 할멈 | 五十세 |
| 신새(이) | 어업장려회사의 젊은 주인 | 三十一세 |
| 신새(안) | 이의 친구 미술가 | 二十七세 |

그 밖에 복돌 어머니와 그 딸, 어부 甲, 乙, 별장직이 영감, 동리 부인 두서넛.

때와 곧

현대 철여름, 오후로부터 밤까지.

경치 좋은 동편 바닷가, 문화촌화하여 가는 어촌.

무 대

오른편은 번창해가는 문화촌의 입구(入口), 왼편은 쪼들어 가는 어촌. 정면에 자동차 다니는 넓고 깨끗한 신작로가 가로놓여 오른편 길은 양식 별장의 현관 앞까지 닿였다. 신작로 옆 배경으로 향한 쪽은 여름 풀이 무성한 축동, 왼편에 큰나무 그늘이 섰는데 그 사이로 어느 쓰러져 가는 어부의 집이 안마루까지 드러다 보인다. 그 집 앞은 조그만 소로

(小路), 이 길이 꼬불거리어 배경 왼편 아래쪽, 꺾꺾 같은 두서너트의 어부의 집 사이로 통하였다. 배경은 거울 같은 해면(海面), 그런데 마침 조수가 일기 시작하여 조금 출렁거린다. 왼편 아래로 목선 한 개가 물에 잠겨 있고 멀리 경치 좋은 섬이 보이는데 그 끝에 어업회사 빌딩이 높이 솟아 있다. 섬 넘어는 범선(帆船)이 하나 둘. 막이 열리면 왼편 소로(小路)로 좇아 상철이 고개를 숙이고 힘없이 걸어온다.

상 철 (축동에 나와 멀리 바다를 바라보며) 그러다. 이 끈이 확실히 八년 전에 내가 살던 뚜룽치 마을이다. 저 섬에는 내가 때때로 동무들과 한가지가 놀든 끈이로구나. 그 끈에서 나는 조개도 캐고, 그물도 말렸지? 아아 그런데 그 사이 이 마을과 저 섬은 이러케도 변해 버렸단 말이나? 그 때는 二十여호가 살던 마을이 쓸어져 가는 집 十여호가 채 못 되고 그거나마 사람들은 다 어디를 갔나? 그런데 우리 집은 어떠한 썸일까? 집터에는 낯모르는 굉장한 별장이 서 있으니... 아아 이 불효한 자식이 버리고 간 불상한 아버지— 그리고 어린 누이는..... 아아, 모도 어찌나 되었나? 그러치 내가 못난 놈이지! (사이 침묵) 그러나 그 당시 나는 이 마을을 뛰쳐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남다른 포부를 가진 내가 이 적막한 어촌에서 썩어지기는 아까웠다. 그러나 집과 인연을 끊고 멀리 해외로 다러나 八년 동안 갖은 고생을 하며 조그만 학문을 배워가지고 돌아왔으니 아아 이것이 대체 어찌된 썸이란 말이나?

이 때 어부 甲, 乙 대화(對話)를 하며 오른편 별장 뒤편으로 좇아 등장.

어부甲 언제든지 그러치만 이번 행보에는 행보 중에도 제일 많이 잡힌 것이 아닌가? 참말이지 그거야말로 아깝데. 이것을 모두 회사에다가 바치고 겨우 일급 뭇십 전을 바다가지고 올 생각을 하니 폭풍이 일어나 파선이나 뒀으면..... 하는 생각이 붓적붓적 나데 그려!

어부乙 쇠! 말조심하게. 잘못하다 목 다라나네. 그러나 할 수 있나? 먹어갈려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회사패들과 경쟁은 할 수 없으니까…….

어부甲 흥, 매일반이야 매일반. 그까짓 일값 三十전이나 四十전 가지고 우리집 여섯 식구가 먹어가는 줄 아나? (좀 흥분된 어조(語調))

어부乙 그러면 못 먹으면 어쩐단 말인가?

어부甲 노상, 굶지? 더욱 요지음 우리 녀편네는 산후(産後)에 잘 먹지 못해 다 죽어간다네. 그런데 그자들은 참 잘들도 놀데. 평양집네 장구통 소리 그칠 날이 없으니……. (핵 돌아스며 적은 소리로) 자네 못 봤나? 회사주인은 부재(父子)가 한 계집을 다리고 은근이 서로 야단이데 그려. (비웃는 표정)

어부乙 젊은 놈팽이는 여기 잇기 쉬우이. (별장쪽을 가리키며) 그런데 요사이 서울 걱정이 두서넛이 또 몰려온 모양이데. 그런데 그들은 웬 팔자가 그리 좋아? 자동차 타고 또 마시고 노래하고 그림 그리는 것밖에 하는 일이 없으니. (별안간 더 적은 소리로) 그런데 연흥이넌 이가 부자가 다 상관한 모양이지……. (눈을 꿈적 서로 픽 웃는다)

상철이 축동나무 그늘에 앉아 이 모양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어부 甲乙 퇴장하려 할 때

상 철 저 잠깐만 물어볼 말씀이 있습니다.

어부 甲, 乙 의아하는 표정으로 멈치며 돌아선다.

상 철 저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당신 두 분 모도 이 근처에 사시는지요?

어부乙 네, 이 골에 삽니다. 요 아랫마을에요……. 웨? 그리시우?

상 철 (기쁜 낯으로) 그러면 저 최명출이라는 이의 집을 혹 아시겠습니까?

어부甲 (자세치 못한 듯 머리를 꼬으며) 최명출이……글세요? 생각이 안 나는 걸요?

상 철 (낙망하여) 그런 이가 八년 전에 확실히 바로 이 마을에 살았는데요.

어부乙 그러면 저의들은 모를 것입니다. 저의들은 三년 전에야 황해도에서 이 곶으로 노동하러 왔으니까요. 그런데 이 곶 굿배기는 대부분 떠나갔지요.

어부甲 그러치요…… 떠나 버렸지요. 쫓기어도 가고 기가 막혀서도 가고—.

상 철 그러면 떠나가면 모도 어디로 갔을까요?

어부甲 (귀찮은 듯이) 그것을 알 수 잇어요? (역시 대화를 계속하며 원편으로 퇴장)

상 철 (강개한 표정으로) 아아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벌써 三년 전부터 이 곶에 없었구나. 우리 집이 잘못된 지도 펍 오랐구나.

이때 축둥 넘어 바다쪽으로부터 귀떡어리 영감이 지팽이 짚고 등장.

영 감 이 몸이 뭐? 이때껏 죽지 않고 잇다가 이 꼴을 본단 말이나? (우는 목소리) 아아, 그놈이 죽었으면 글세 어찌잔 말이나?

땅만 보며 원편으로 퇴장하려 할 때 상철, 노인의 얼굴을 이윽히 보다가 별안간 반가운 듯이 달려들며.

상 철 앗, 영감님! 이게 웬일입니까?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녕 감 (눈을 부비며) 어! 자네가 자네가 상철이.

상 철 네 그러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이 뭐? 이러케 변했습니까?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또 우리 집은 어찌 되었어요?

녕 감 (상철의 입만 바라보다가 대답은 않고 상철의 양복과 넥타이를 만지며) 흥, 그런데 자네도 그놈의 양복을 입고 왔네 그러! 그러치 이 빨간 것이 목당기겠다. 그러치, 그놈의 양복만 보아도 나는 미운 생각이……. 그놈의 양복쟁이들. (하늘을 치어다보며 한숨진다.)

상 철 녀감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뭐? 내 말은 대답 안 해 주십니까?

나는 참으로 애가 타 죽겠습니다.

녕 감 (멀리 섬쪽을 손뾰락질하며) 자네도 생각날 것일세, 자네가 어렸을 때 내 나룻배를 타고 가끔 저 섬에를 놀러 갔겠다. 그러치 그 때는 나도 이러케 궁하지 않았지……. 그런데 그 놈의 자동차가 이 동리에를 뽕뽕거리며 찾아오고 서울 양복깁정이들이 떼로 몰려오기 시작하드니 그놈의 회사가 생기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하나 들씩 내어쫓고……. 그놈의 똑딱이 배는 내 나룻배를 홀각 집어삼켰네 그려! (홍분된 어조로) 그리고 우리 아들놈, 수석이란 놈이 고기를 잡아 당당이 집으로 못 가져오고 경상도 전라도까지 위협하고 먼 길을 가잖으면 안되는 것도 모도 자네 같은 양복쟁이들 성화 때문이야……. (바다편으로 다시 걸어나가며) 그런데 아직도 보이지 안는구면……. 아무리 먼 곁을 갖드라도 벌써 보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으니, 정녕코 그놈이 죽었어. (주저앉아 운다)

상 철 왜? 자꾸 판 소리만 하십니까? 그래 수석이가 고기를 팔러가서 안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또 어찌 되었습니까?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녀감님, 제 말이 혹 안 들립니까?

상철이 노인의 옷소매를 흔든다. 영감 상철을 흘겨보며.

녕 감 이놈아, 八년 전에 네 아비 버리고 간 버릇이 그대로 남아 있어 왜? 이 불상한 늙은 사람을 사대질하나 말이야 나쁜놈 같으니……. 네 친구 양복쟁이들 장구집에 몰켜가드라. 너도 거기나 가봐, 네 누이년 잡년도 가 보고……. 난 오늘도 또 배웅해 줄 사람이 있어……. 바빠——.

상 철 (급하게) 며요? 내 누이가 어디 잇단 말입니까?

노인 역시 못 알아듣고 원편으로 퇴장. 상철 노인을 쫓아가려다가 다시 축둥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두 손으로 싸고 괴로워 한다……사이…….

상철 (독백(獨白)) 아아 그같이 유순하든 저 녁감을 저같이 성질을 악화시키고 또 말 못 듣는 병신을 만들고 이것이 모도 무엇 때문이나? 무엇이 원한이란 말이나?

이 때 별장 현관으로 좇아 신사 이와 안 등장.

신사 이 자, 보십시오. 이 곶에 나와 저— 섬 가운데 우리 회사 뺨뺨을 바라다보는 경치란 또한 훌륭치 안습니까? 시인 아닌 나라도 때때 시를 읊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고, 화가 아닌 나라도 때때 칸버스 안 가진 것을 한하는 정도입니다 그려! 하하— 더욱이 때는 바다 경치를 윤택게 하는 천여름이 아닙니까 푸르고 넓은 하늘 밑에 거울 같은 해면(海面)에 지금 막 두어 개 범선(帆船)이 장한(長閑)의 낮꿈을 꾸고 잇습니다 그려.

신사 안 그러치요, 이러키에 나도 다른 곶 다 버리고 이 곶을 택해온 것이 안입니까? 이 경치야말로 이번 미술전람회에 입선만 되면 만인의 눈을 현황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미스터—에게 폐를 끼쳐 미안한대요.

신사 리 천만에 그런 말씀 또 하시면 제가 섭섭합니다. 옛글에 「달이 잊으되 술이 없고, 술이 잊으되 안주가 없고, 안주 잊으되 친구가 없다」는 격으로 나도 이 경치 좋은 곶에 잇어 이 좋은 씨슨을 만나 술 잇고 계집 잇으나 같이 안주를 논을 벗들이 찾아와 주어야 더 의미 잇게 생을 형락할 수 잇지 안겠습니까?

둘은 유쾌히 담화하며 안, 그림을 시작한다. 상철 그림을 바라보다가 시선이 마주쳤다. 그를 본체만체 자기들의 담화를 계속.

신사 이 (그림을 드러다보며) 실로 미스터, 안의 재질에는 참 탄복 앓을 수 없습니다. 이번 미전(美展)에는 이 그림이 꼭 입선될 줄 믿습니다.

신사 안 하하, 그리 되어야 할텐데요! 그리 되면 한 톱 단단히 내지요?

신사 리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내가 먼저 입선되기를 축하하는 뜻으로 한 톱 내지요? 마침 일기가 깨끗하고 별장도 깨끗이 소제되었으니까요…….

신사 안 그래 볼까요? 오늘도 그림은 십 분도 못 그리고 맙니다 그려. 그런데 여자를 부르려면 오늘도 꼭 연홍이를 부르십시오!

신사 리 하하, 미스터, 안이 연홍에게 벌써 그러케 녹았단 말이지. 그래 봅시다 그려. 그리고 그림은 아직 기한이 먼데 무엇이 그리 바쁘니까?

신사, 안 여자가 올 때까지는 그림을 계속한다. 이, 별장직이 노인을 불러 무엇을 분부한다. 별장직이 우편으로 퇴장. —사이— 연홍이 노래를 부르며 등장.

노래 청치마 밑에다 소주병차고요
오동수폴로 임 찾아 간다네
.....
.....

연 홍 (아양을 떠는 소리) 아이고, 웨들 본체만체들 해, 안주사 그림이 벌써 반 넘어 그려졌지? 그러케 바다 경치만 그리지, 나체화인지 무엇 그린다고 날더러 또 빨게벗으라고 졸라대지 말아요…… 응…….

연홍 우슴을 먹음고 두 사람의 얼굴을 드려다 본다. 이때 상철, 무슨 이상한 것을 발견한 듯 차츰차츰 가까워온다.

신사 안 (화필(畫筆)을 내던지고 연홍의 어깨를 탁 치며) 자, 됐다. 오늘 이만 그리고 만다. 팔분 그렸으면 하로 일 했지? 인제는 먹을 차례다. 그런데 연홍아, 너 웨 그리 빗싸? 먼저 찾아오면 못써?

연 홍 아이고 손님이 꼬리를 뺏으니까 여가가 있어야지.

신사 이 (우숨을 허트리며) 아무렴, 원체 명기는 달리. 그런데 미스터, 안과 연홍이 사이가 어느 사이에 이러케 뺏단 말이야?

연 홍 (원망하는 눈썹으로) 아이고, 이주사는 공연히 또 강짜가 나 그래!

유쾌한 세 사람 별장 현관으로 퇴장하려 할 때.

상 철 (별안간 연홍에게 달려들며) 네가 네가 금녀가 아니냐?

연 홍 (놀래 돌아다 보다가) 아 오빠. (별안간 땅에 엎흐러지며 운다)

상 철 이게 다 어찌된 일이란 말이나? 어서 좀 말이나 해다우—.

연 홍 (느끼며) 오빠, 오빠는 아직 이 세상에 살어 게섯습니까? 이것이 꿈이 아닌가요? 믿을 수 없어요?

상 철 그까짓 소리는 다 구만두고 대관절 그 사이 이러케도 변천이 만앗단 말이나? 그런데 아버지는 어떡케—.

연 홍 (급히 말을 가로채이며) 말 마세요! 아버지는 나를 팔아먹고 어디로인지 가버리었서요? 물론 살 수가 없고 또 남의 빚 때문에 그러기는 했지만, 내 몸이 이러케 되고 보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를 원망 안을 수 없어요.

상 철 (외로운 듯이) 응, 금녀야 다 알겠다. 더 나를 괴롭히지 말어 다우. 모도 이 오빠의 잘못으로 원인함이다. 아아, 그러나 이러케까지 될 줄이야…….

……사이…… 신사 안과 리, 어이없는 듯이 얼굴만 치어다보다가.

신사 이 연홍이, 아무리 반갑지만 그만 울어도 좋아. 어린애처럼 울기는 웨 울어. 자, 인제는 일어나 웃고 우리와 같이 어서 들어가야지?

연홍이 몸을 흔들며 울기만 한다. 상철, 이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상 철 보아하니 노형도 상당한 교육을 받은 분 같은데 오직 자기 향락을 생각하는 외에 아무런 다른 뜻이 없단 말이요? 우리는 친남매로서 팔년 만에 상봉했소. 내 누의가 인제는 노형들의 향락을 돕는 기계가 되고 말았는데 이러케 노형들의 향락의 시간을 방해하여 미안은 합니다는 잠깐 이야기할 시간을 빌려줄 만한 인정은 잇겠지요?

신사 이, 능멸하는 눈으로 상철을 바라보다가 조롱하듯 히히 웃으며.

신사 이 미스터, 안 모다 오늘 일수가 나쁜 때문입니다. 날도 저물어가고 기다릴 수 없으니 산월이를 부르지요.

신사 안 그까짓 똥똥보 산월이는 불러 무엇해 응.

신사 이, 별장직이를 불러 평양집으로 보낸다. 차츰 어두어간다.

상 철 (다시 금녀를 보며) 그런데 아버지가 갔다면 어디를 갔단 말이나?

연 흥 (겨우 울음을 진정하며) 처음에는 행방 없이 떠갔섯지요. 그런데 이 사이 어떤 들리는 말에는 평안도 어느 탄광에서 돌아가섯다고도 하고……. 아무튼 살아계지시 않은 것만은 적실해요?

이 때 별장직이 등장.

직 이 (신사 이 앞으로 가서) 산월이는 댁 영감마님께서 회사로 불러간텡쇼. 그리고 평양집이 저기 온텡쇼.

평양집 등장.

평양집 어찌된 셈이요? 누가 남의 영업을 방해해? (알미운 눈썹리로 상철의

앞으로 와서) 당신은 대체 누구요?

상 철 나는 팔 년 전에 이 곶을 떠났든 이 기생의 오빠 되는 사람이요?

평양집 (비웃으며) 흥흥 돌아다니던 말 들으니까 아주 알부랑자인 모양이로군! 그런데 당신 누이면 어찌갓단 수작이요? 달여가갓단 말이요? …… 그러면 五百원 내놔. 몸값 二百五十원 하고 그리고 四年간 먹인 값이 또 二百五十원만 될테야! 아주 험값이지!

상 철 (분해 어쩔줄을 모르며) 무엇이 어찌고 어찌? 무슨 말버릇이야? 내 누의가 무슨 물품인 줄 알어? 그리고 四年간이나 내 누이의 살을 접이어 뜯어먹고 무엇이 밥값이 어찌고 어찌? 엔……할미 행실이라고……. (주먹을 쥐고 편다)

평양집 (악을 쓰며) 주먹을 쥐면 어쩔테야? 어디서 알부랑자가 굴러들어와 대낮에 생사람을 치려고 덤벼들어 조금도 무섭지 않아! 때릴테면 때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어! 내가 이 영업을 二十년째 해 먹어! 알부랑자 하나나 두엇쯤은 엇먹기야…….

상 철 (비장한 얼굴로 평양집을 이윽히 노려보다가 주먹을 다시 피며) 응 응 내가 내 누의를 이 다음에 다려갈 날이 없을 줄 알어!

평양집 흥 흥 알고 보니 주머니도 텅이로군! (다시 연흥을 보며) 너 이게 웬 버르쟁이나? 이주사 안주사께서 이따위 꼴 보자고 널 불러왔어? 냉큼 일어나?

연흥 할 수 없이 눈물을 거두며 일어난다.

연 흥 (평양집을 보며) 어머니! 용서해 주서요 너무도 오랜간만에 맞난 오빠가 되어 너무 반가워 제가 잘못하였서요? (눈물을 씻고 상철을 보며) 오빠 모쪼록 몸조심하시고 제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주서요. 그리고 제 생각은 조금도 말아 주서요 저는 임의 버린 몸이에요 지금은 어찌하려야 어찌할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러나 오빠 한 사람만이나 제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주서어 우리 집의 이 모든 수치를 씻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세요! 오빠 거둬 부탁하오니 제 걱정은 아예
말아 주세요.

연홍, 이와 안을 따라 별장문으로 퇴장. 평양집, 독한 눈으로 다시 쏘아보다
가 별장 뒷편으로 퇴장. 상철 긴장한 표정으로 이들의 모양을 이윽히 바라보고
있다.

무대 광선 차차 희미해지고 동으로 바다 저편에서 달돋는 빛이 보인다. 복돌
떠나는 행구를 걸머지고 등장. 복돌, 상철 앞에 와서 상철의 얼굴을 이윽히 들
여다보되 상철, 깨닫지 못한다.

복 돌 (별안간 상철의 어깨를 흔들며) 앗, 자네가 상철이 안인가.

상 철 (놀라 돌아보다가) 앗, 자네는 복돌이.

복 돌 (상철의 우 아래를 훑어보며) 자네는 나가서 잘됐네 그려! 학교에 단엿
네 그려! 자네는 인제 사람 댓네.

상 철 그려케야 말할 것 없지만 만리타국으로 달아나 갖은 고생을 하며
학문이라고 쥐꼬리만큼 배웠네. 그러나 八년 만에 가득한 희망을
가지고 고향을 찾아온 오늘날 이것이 모도 무슨 변천이란 말인가?
아무리 변한다 변한다 한들 이러케까지 변한단 말인가?

복 돌 그러치, 껍도 변했지? 수백 년 동안을 이 끝에 토백이로 살든 사람
들이 이 수삼 년 사이에 모도 떠나 버렸지! 그 대신 이 마을은 훌
륭한 마을로 개명하지 않았나? 경치 좋은 곳이라고 벽돌집, 층집
별장이 수북이 생기고 또 회사가 생기고 요리집이 생겼지? 우리들
은 그 전에 꿈도 못 꾸든 일일세! 물찬 체비 같은 기생들이 또 있
지! 훌륭하지 않은가? 그런데 자네 누이도……. (말을 우물쭈물한다.)

상 철 다 알았네! 나는 지금 누이를 만났든 것일세! 그같이 영리하든 내 누
이가 지금 저 낮모를 돈 잇는 놈들의 정욕을 채워주는 도구가 될 줄
은 생각지 못하였든 일일세! 아아 이것이 오직 내 아버지와 내 죄만
도 아니겠지? 여기에는 커—다란, 어떤 해결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잇는 것일세? 참 분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 그런데 자네 이 밤

에 어디 가나! (등에 진 것을 보며) 앗, 이 진 것은 모도 무엇인가?

복 돌 (별안간 얼굴을 땅으로 숙이며) 우리집도 귀어코 간다네!

상 철 무엇? 가? 어디를 간단 말인가?

김서방, 복돌어머니와 누이 등장. 모도 행구를 지고 있다. 뒤따라 동리 사람 두서넛과 귀먹어리영감 등장.

상 철 앗, 김서방 이게 얼마만입니까? 이 밤에 어디를 떠나십니까?

김서방 자네, 이게 웬일인가? 그래도 이 끈을 고향이라고 찾아들어 왔네
그러! 아무도 마저줄 사람도 없는 이 끈을! 모도 떠나가 버렸지?
(별안간 한숨을 쉬며 작은 소리로) 우리도 오늘은 귀어코 떠나간다네.
입을 악물고 안 가려고 하였던만 무슨 소용이 잇겠나? 아직까지 남아
잇었던 것이 이상하지! 그리고 우리같이 쫓겨가는 무리들은 또한
이같이 밤에 떠나야 될 이유를 많이 가지고 있다네.

상 철 (괴로운 표정으로) 그러면 가신다면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김서방 그것은 가는 우리도 모르지. 발끝 가는 대로 가지. 이 끈에는 더 살
수없으니까. 그리고 아마 곳 달이 솟아 올를 터이니까 달빛을 바라
보고 아무 끈으로나 가지.

상철과 여러 사람 모도 무엇을 생각하는 것같이 침묵. ……사이…… 상철 별
안간 무엇을 비장이 결심함 표정.

상 철 안입니다. 절대로 가서는 아니됩니다. 이대로 도로 들어가십시오.
지금 아무 끈을 가나 우리는 역시 똑같은 운명을 맞날 것이 아닙니
까? 그럴진대 이왕이면 이 끈에 죽기로 붙어 있어 죽기로써 싸워나
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독백(獨白)하듯이) 아아, 나는 나의 고향이
이러케 된 줄은 참 몰랐습니다. 왜? 나는 고향에 돌아와 여러분과
한가지 힘을 합하여 싸워 나갈 술법을 배워오지 않고 꿈속에서 헤

매였는가? (다시 여러 사람을 향하여 조금 높은 소리로) 그러나 나는 조그만 힘이나마 여러분과 한가지 우리의 살 방침을 연구기로 결심하였사오니 자아 곳 다시 들어갑시다. 낮에는 돛 높이 달고 썩어가는 나무배나마 거칠은 풍랑을 헤치고 겁내지 말고 돌진하며 밤에는 모도 한 곳에 모여 앉아 같이 모르는 것을 알며 싸워나갈 방침을 연구하면 반듯이 어떠한 광명이 있을 것입니다. 자 마침 물때도 좋고 하니 이 달밤에 위험한 행보로 떠납시다.

복 돌 (죽는 소리로) 자네 말도 옳기는 하지만도 도로 들어가 노를 저어도 역시 별 도리가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상 철 (더 힘있는 소리로) 무어? 그것이 무슨 말인가? 젊은 우리들이 이런 약한 마음을 가지면 글세 어찌잔 말인가. 아닐세. 우리에게는 언제까지나 죽으란 법이 없네. 글세 딱하지 않은가? 약하고 힘없다고 스스로 자멸을 해서야 너무 어리석지 않은가? (귀먹어리 영감을 가리키며) 아아참 아까 이 영감이 내 입은 이 양복을 펴 마음에 거리끼는 모양이든걸. (양복을 황망히 벗으며) 이까짓것 참되지 못하고 군색한 것 바다로나 던져버리지. (복돌을 향하여) 자, 복돌이 어서 새로운 용기를 내어 우리는 지금부터 힘과 마음을 합하여 짝으러진 마음을 위하여 싸워나가세. 굶으면 다함께 굶고 먹으면 다함께 먹세 그려!

이 때 바다 저쪽에서 둥근 달이 불근 솟아오른다. 무대 다시 광명. 무대 왼편쪽에서 '에야테야'의 배젓는 소리 들린다. 차차 커진다.

상 철 (귀를 기우려 듣다가 다시) 자 저 배들은 이 물에 돌아온 모양이지? 그리고 혹시 이번 배에 수석이가 돌아왔는지도 모르겠네. 자 우리는 이제 떠나야지 곳 우리의 고기배를 준비해야 안겠나? 자.

배소리 더 가까이 요란하게 들린다. 귀먹어리 영감 영문을 몰라 두리번거리고 상철 서두는 가운데 막—